

국어 행동 강령(비문학)

1. 입체적 구성

·서두에서 암시된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문단부터 암시된 정보에 직결된 정보를 반응·이해·암기하기.

·주제 독해 = 1문단에서 등장하는 필자가 궁극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독해하는 행위
->2, 3, 4문단에 등장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있어도 반응하고 암기해주기

·서두를 기준으로 문장들의 중요도를 설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집중도를 조절해가며 읽기

·글은 서두에서 무엇에 대해 쓸지 암시한 후 그에 대한 부연,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문단에서 쓰이는 표현이나 흐름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다.

·1문단에서 '이러한, 이처럼, 이렇게, 따라서, 이런 점에서'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핵심문장이다

·1문단에서 필자가 귀결을 어떻게 맺는지, 무엇을 구체화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핵심 문장을 골라낼 수 있다.

·'이러한, 이처럼, 이렇게, 따라서, 이런 점에서'처럼 정리·집약해주는 어구로 시작하는 문장은 힘주어 읽기.

·한 문장 내에서도 의미가 바뀌면 의미단위로 끊어 읽기.

·필자가 1문단에서 제시한 핵심 문장이 주제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있어도 반응 해줘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문단의 핵심 문장에 쓰인 어구들을 암기해야한다.

·주제를 먼저 파악하여 읽어줘야지만 지문의 말을 지문에 없는 말로 의미를 재구성하여 출제 되는 선지들에 대응할 수 있다.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자.

·미시적인 문맥적 관계가 서로 대비되거나 유사한 경우 읽는 그 순간에 바로 관계 이어주기.

·not A but B 문장은 A에 X 표시를, B에 O 표시를 하면서 힘주어 읽기.

- 기본 setting 구간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구간이다.
- 주제 직결 문장들이 있는 부분에서 정답 선지들이 많이 출제된다.
-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전체를 고려해서 따지기
- 1문단에서 구체화를 해주는 문장이 핵심 문장, 즉 주제이다. 이러한 문장은 내용을 엄밀히 파악하고 중요한 어구들은 암기까지 해주도록 한다.
- 기본 setting이 끝난 후 Main 흐름으로 복귀하면 주제와 직결된 문장들은 반응·이해·암기해서 반드시 확보해 주기
- 기본 setting 구간에서는 주제 직결 문장들에서 등장할 어려운 개념, 용어들을 뜻풀이 해줘서 주제 직결 문장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선 개념세팅 후 주제서술’은 평가원이 애용하는 글의 구성 방식이다.
- 미시적인 문맥적 관계(읽는 순간에 바로 하기)
 - 1)대칭->비교 필수
 - 2)상응·유사->연결 필수
 - 3)비례·반비례->파악 필수
- ‘~할수록’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은 반드시 선지로 구성되므로 힘주어 읽고, 비례·반비례 관계를 방향기로 처리하기
- 서두에서 필자가 서술하려는 화제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화제어의 무엇에 대해 서술할지 파악함으로써 타겟점을 좁혀야 한다.
- 1문단에서 ‘따라서’로 시작하는 문장은 핵심문장일 가능성이 높다.
- 현재위치가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의식하기.
- 전에 서술한 내용을 정리 해주는 문장이 제시되면 그대로 내용을 이해해주면 된다.
- 공식·관계식이 2개 이상 제시되면 서로 연관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필기해 놓기
- 글은 무조건 Main 흐름으로 복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본 setting 읽어 나가기.
- 화제어의 무엇에 대해 쓸 것 같은지를 구체적으로 의미 단위로 파악하여 타겟을 명료화하기

- 어떤 용어가 어느 구간에 존재하는지와 같은 용어 범주화를 할 필요가 있다.
- Main 흐름으로 복귀할 때에는 서두의 핵심 문장에 있던 핵심 어구를 가지고 돌아온다.
- ‘한편’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새로운 흐름을 가진 문장이다.
- ‘이러한’이 쓰인 문장은 앞의 내용을 정리·집약해주는 문장으로 집중해서 읽어야한다.
- 서두에서 화제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 단위로 파악해서 가져가기.
- ‘윗글을 바탕으로~’ => 주제를 바탕으로~
- 지시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인하기
- 필자가 단어의 짝을 맞춰주면 무조건 둘이 병치시켜주면서 읽기, 즉 몽똥그려서 읽지 말고 계열화해서 읽어야한다.
- ‘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A가 Main, B는 setting
- 기본 setting들은 어차피 Main으로 복귀전에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한 문장거리들’이므로 “어차피 Main으로 종속되겠지..”하면서 용어들만 간단히 체크해나가기
- setting 구간에서는 용어들에 표시해주면서 읽어나가기
- 어떤 대상의 특성인 것은 O, 특성이 아닌 것은 X 표시해주기
- setting 구간에서 제시된 용어들이 한꺼번에 쓰인 문장은 매우 중요한 문장이므로 밑줄치고 암기한다.
- A와 B가 병치되는데 표현이 A에 몰입되어있으면 A를 중점적으로 이해하기
- 문맥적 동의어가 제시되면 서로 같은 의미임을 반드시 파악하기
- A와 B가 병치되어도 글에서의 상황과 A가 더 유사하면 A를 중점적으로 글을 이해하기
- 말 이해가 어려우면 예시의 상황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 Main 흐름으로 복귀할 때에는 서두의 핵심 문장과 어구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다.
- 개념들이 개별로 제시되어있으면 치고 이해하면 되지만 개념이 군집화 되어있으면 개요도를 그려서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기.